

조선 · 수소경제 · 해양 · 기후변화 협력 확대

한-노르웨이 정상회담

문 대통령,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지 요청
솔베르그 “한반도 평화 기여 방안 모색할 것”
양국 파견 근로자 연금 수급권 강화 등 MOU도

노르웨이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조선, 수소경제, 해양, 북극, 기후변화 등의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솔베르그 총리는 이날 오전 노르웨이 총리 관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1959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하고 협력의 폭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두 정상은 양국이 전통적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왔음을 평가하고 향후 친환경·지속가능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노르웨이는 세계 6위의 상선대를 보유한 해운 강국이고, 선박의 반 이상을 한국에 발주하고 있다. 그리스와 일본에 이어 한국 조선업체 3위 고객이다. 노르웨이는 친환경 첨단 조선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아울러 문 대통령과 솔베르그 총리는 차세대 무공해 에너지원인 수소의 생산과 활용, 저장에 대한 기술개발·정책

교류를 확대하는 등 수소 경제 실현을 위해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기후변화 대응과 대기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 지속가능한 북극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앞으로 양국이 북극 공동연구 추진 등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노르웨이 정부의 변함 없는 지지와 성원에 사의를 표했다.

솔베르그 총리는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언급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 과정에 기여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포용국가 비전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두 정상은 한국의 ‘포용국가 건설’과 노르웨이의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정책 비전이 일맥상통한다는데 견해를 같이 하고 복지 분야에서 양국 간 정책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회담 마무리를 통해 양국의 각별한 인연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노르웨이는 한국전쟁



노르웨이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슬로 총리관저에서 에르나 솔베르그 총리와 공동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때 대규모 의료단을 파견해 많은 환자들을 치료해 준 고마운 분들”이라며 “한국인들은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라고 여기며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양국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라며 “현재 양국은 조선·해양수산 등 기존 협력 분야는 물론 미래 산업과 방산, 친환경 산업 등에까지 협력 범위를 넓혀가고 있고, 또 기후변화, 지속가능 개발 등 주요 국정

문제에 있어서도 적극 공유하고 있

다”고 설명했다.

솔베르그 총리는 “작년에 평창 동계 올림픽에 간 것은 좋은 경험이었다”며 “한국을 볼 수 있는 기회였다.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양국은 같이 공유하는 가치가 많이 있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인권 등에서 우리는 많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과 노르웨이 정부는 정상회담 종료 후 양 정상 참석 하에 2건의 협정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사회보장협정은 양국 근로자들의 해외 파견 시 상대국 사회보장보험료 이중 납부를 방지하고 양국 파견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수소 경제 및 저탄소 기술협력 MOU’는 수소경제 분야 양국 간 정책 교류와 기술 교류, 실증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양국은 또 이번 문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북극 관련 MOU 5건, 조선 해양 분야 MOU 7건 등 총 16건의 문건을 체결했다.

김진성 기자

임종석 전 총 비서실장 사실상 종로 출마 공식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로 이사하면서 사실상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13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임 전 실장은 지난 10일 서울 은평구 주거지에서 종로구 평창동 단독주택으로 이사했다.

현재 종로구는 현역 의원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지역구로, 전 전 국회의장은 아직까지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즉 정 의장과 교통정리부터 해야 하는 상황이다. 거기에 이낙연 국무총리도 종로 출마설이 제기되고 있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앞서 임 전 실장은 지난 3월 정 전 의장을 만나 종로로 이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정 전 의장은 별다른 말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의장 측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면서도 “의정을 하신 상황에서 단순히 한 번 더 의원직을 하기 위해 출마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종로가 정치적으로 중요하고 민주당에 불리한 지역인 만큼 한국당에서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출마할 경우 당에서 국정감사 이후 여론조사를 한 뒤 정 전 의장에 출마를 요청한다면 고려해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뉴시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내주 모든 상임위 가동”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정상화와 관련 “더 이상 자유한국당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는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으로 ‘바탕 놓고 있는 국회’라는 비난을 받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준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선 당정 회의를 수시로 가동하고, 다음 주 모든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를 가동할 태세를 갖추겠다”며 “이를 통해 언제라도 상임위와 소위를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시급한 민생 입법과 추경을 심사할 준비를 완료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이·통장 수당, 내년부터 인상 “도내 양식 농가 고소득 어종 생산 여건 마련토록 최선”

당정 “월 20만원~30만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내년부터 이·통장 기본수당을 현행 월 20만원에서 30만원 이내로 10만원 인상키로 결정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장·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강화 방안’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

조정석 정책위의장은 당정 직후 브리핑에서 “이장·통장은 읍·면·동 행정의 관료조직으로 각종 사실조사, 복지지원 대상자 발굴,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주민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장·통장 기본수당은 2004년에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15년간 동결되어 그간 국회와 각 지역을 중심으로 기본수당 현실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이에 정부는 최근 기본수당 인상 여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을 실시했다”고 했다.

이에 당정은 지방자치단체 의견과 2004년 인상 이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기본수당을 현행 월 20만원 이내에서 30만원 이내로 10만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뉴시스

도의회 예결특위, 부안 새우 양식농가 방문 현장활동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오·익산)는 13일 부안군 횡다리새우 양식농가 현장을 방문해 어민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전북은 현재 내수면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넓고 개소수도 많지만 생산량 및 생산금액은 전남 보다 낮다. 실제 전남은 내수면 면적이 192km(557개소)에서 8281톤의 생산량과 1909억원의 생산금액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은 252km(667개소)의 면적에서 7090톤의 생산량과 999억원의 생산금액에 불과하다.

최영일 의원(순창)은 이와 관련 지

난 10일 행정부지사를 대상으로 전북도 결산심사 정책질의를 통해 내수면 양식 어종이 다양하지 않고 생산 어종의 시장성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북의 생산 어종은 향어, 메기, 동자개, 미꾸라지 등이 대부분이라며 전북도(수산기술연구소)가 다양한 고부가가치 어종을 개발, 보급해 양식어민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어민들이 초기 투자비용 문제로 주저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과 함께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어종으로 횡다리새우를 예로 들었다.

횡다리새우는 우리나라 총 생산량이 5천톤인데 소비량은 10배 이상 많으며 경쟁력 높은 고소득 어종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예결위는 이 같은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횡다리새우 양식 농가를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양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대오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익산1)은 “앞으로 도내 양식 농가들이 횡다리새우 등 경쟁력 있는 고소득 어종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북도가 지원계획을 수립,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예결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